

남원시, 안전·쾌적한 하천 만들기 나선다

올해 292억원 투입
노후 제방·수문 등 정비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

리 28억2400만원,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58억원 등 하천정비에 총 291억8800만원을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신촌동 요천 합류부에서-주천면 고기리 구간인 13.7km를 정비한다. 이곳에 휴게 쉼터와 자전거 도로(6.62km) 등 원천천 내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양, 레저공간을 제공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목과 부유물질 제거 사업과 퇴적된 토사 준설작업을 추진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경작지 침수를 대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347개소 등 법정 하천 389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는 올해 총 사업비 292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을 정비하고 고수부지 내 가족단위 체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남원시 제공)

순창군, 일자리 정책 4년 연속 '우수'

전북도 평가...군산·고창도

량지표를 비롯해 중앙 및 도 일자리 공모사업 응모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청년 일자리 및 자재 일자리 사업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우수 군에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 2017년 평가부터 4년 연속 우수 또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해성 순창부군수는 "일자리정책 우수 군으로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며 "지역 청장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jg@kwangju.co.kr

순창군이 전북도 주관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23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전북도가 추진한 '2020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군산시, 고창군, 완주군과 함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매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 북지역 14개 시군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고용지표와 취업 지원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 총 5개 분야에 21개 지표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순창군은 고용률과 취업자 등 정



전해성(오른쪽) 순창부군수가 지난 20일 전북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 우수 표창장을 받았다. (순창군 제공)

익산 청소년 4명 중 1명 "극단 선택 생각해봤다"

성적·가족 갈등 주 원인...그중 절반은 구체적 실행계획 세워

익산지역 청소년 4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 이 중 절반은 계획까지 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 익산에 거주하는 14~19세 청소년 10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48.2%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봤다'고 했고, 23.2%는 '시도를 해봤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이유는 '학교 성적'과 '가족간 갈등'이 각각 23.9%로 집계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음주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0%가 '있다'고 했고,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1%가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가 '있다'고 했다. 특히 2.5%는 '주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의존도 조사에서는 45.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했고, 73.4%는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8%가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학생의 경우 대화와 음악, 남학생은 게임, 음악, 운동 순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4.3%가 '있다'고 했다. 17.2%는 '아르바이트 경험', 4.6%는 '직업훈련기관 경험', 2.5%는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다. '익산시의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는 75.3%가 '모른다'고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북에서 청소년 욕구 및 실태조사는 처음"이라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정읍·고창 재도약 이룰 것"
유성엽 민생당 대표 4선 도전



민생당 공동대표인 유성엽 국회의원이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를 선언, 4선에 도전한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정읍시청에 이어 23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야당 당 대표를 거지며 전북의 대표 정치인으로 발돋움했고, 3선 동안 정읍·고창의 국가 예산을 3배로 증가시킨 힘과 능력이 있다. 4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정읍·고창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4선 도전을 선언했다.

유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노인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감세(부가세 감면), 첨단 신약개발 산업단지 조성,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조기 완공 및 동학기념사업회 건립, 내장산 관광 활성화, 국가 전력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농생명·바이오·스타트업 혁신 도시화, 고창갯벌 유네스코 등재 및 문화체험형 관광도시화 등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4·15 총선 정읍·고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하용 예비후보가 선거전에 나섰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알바 자리 잃은 시민 위해
군산시, 일자리 200개 만든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공일자리 200개를 만들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2020 위기 극복 알바'로 이름 붙여진 이 공공일 자리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시민과 매출 하락(전년동월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가족을 위한 것이다. 하루 4시간씩 5일간 근무하며 시간당 8590원을 준다. 선발되면 다음달 6일부터 6월30일까지 일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는 이들을 공적마스크 판매와 열화상 카메라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기 위해 만든 공공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NH농협손해보험